

12월5일 오스코텍 임시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고 싶으신
주주님은 아래 의결권 행사 안내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및 오프라인 의결권 투표 관련하여
문의사항은 031-628-7613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① 전자투표 (한국예탁결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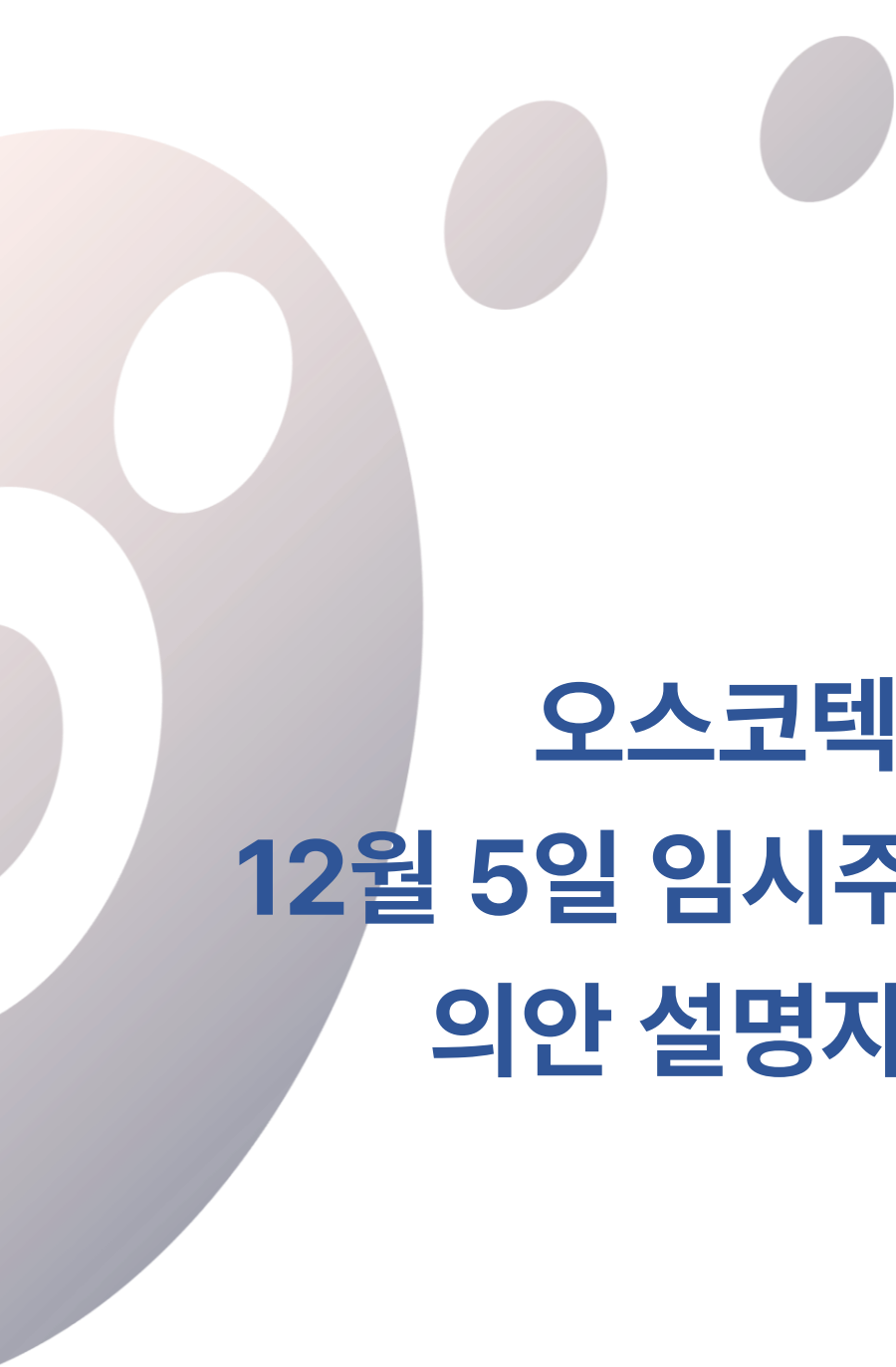
PC에서 <https://evote.ksd.or.kr> 으로 접속하시거나, 네이버에서 'kvote' 검색 후
한국예탁결제원 전자투표 사이트에서 전자투표 직접 진행
(모바일인 경우 <https://evote.ksd.or.kr/m> 으로 접속 진행)

② 오프라인 의결권 투표 (방문진행)

전자투표가 어려우신 주주분은 오스코텍 IR 팀 번호인 031-628-7613 으로 연락하신
후 오프라인 방문 요청을 통해 오프라인 의결권 투표 가능

12월5일 오스코텍 임시주주총회 안건 투표 권고사항

안건명		권고
제1호	정관일부변경의건 - 발행예정주식의총수변경	찬성
제2호	사외이사김규식선임의건	찬성
제3호	사내이사신동준선임의건	찬성
제4호	감사보수한도승인의건	찬성



오스코텍

12월 5일 임시주주총회 의안 설명자료

존경하는 오스코텍 주주 여러분께

오스코텍을 믿고 지켜봐 주신 주주 여러분께 먼저 깊이 감사드립니다. 동시에, 그동안 제노스코 상장 추진 관련 불신, 소통 및 IR 부족 등으로 심려를 끼쳐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이번 임시주주총회는 이러한 신뢰 위기를 정면으로 마주하고, 주주 중심 체제로 새롭게 출발하기 위한 첫걸음입니다.

지난 수년간 오스코텍은 기술이전, 임상 승인, 글로벌 신약 상업화 등 의미 있는 성과를 만들어 왔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성과의 배경과 방향을 주주 여러분과 충분히 공유하지 못했고, 2025년 정기주총에서 CEO 재선임안이 부결되는 상황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회사는 이를 주주 여러분의 엄중한 경고로 받아들이고, 앞으로 의사결정 과정과 결과를 투명하게 설명하는 '소통 중심의 경영'으로 전환하겠습니다.

논란의 중심에 있었던 제노스코와 관련해서는, 회사의 입장을 명확히 정리했습니다. 제노스코는 별도 상장을 추진하지 않으며, 이번 정관 변경을 통해 오스코텍의 100% 자회사로 통합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중복 상장 및 이해상충 우려는 구조적으로 차단되며, 제노스코가 향후 창출하는 모든 성과와 가치는 온전히 오스코텍 주주 여러분께 귀속됩니다. 관련 주식 발행 목적과 구조는 전자공시를 통해 투명하게 공개하여, 이번 개편의 목적이 제도적으로도 분명히 보장되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회사는 이사회와 IR 체계를 근본적으로 손질하고자 합니다. SM엔터테인먼트 이사회 의장과 한국거버넌스포럼 회장을 역임한 김규식 후보를 이사로 선임하여, 주주가치 제고 경험과 독립성을 갖춘 인사가 이사회에 직접 참여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증권사 리서치센터장 출신으로 2025년 CFO로 합류한 신동준 전무를 이사로 선임해, IR과 주주관계를 이사회 차원의 핵심 기능으로 끌어올리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오스코텍 이사회는 보다 독립적이고 주주 친화적인 지배구조를 갖추고, 자본시장과의 소통을 한층 강화할 것입니다.

이번 임시주주총회는 단순히 정관을 바꾸고 이사를 선임하는 절차가 아니라, 주주와 함께 신뢰를 회복하고 새로운 성장의 선순환을 만들기 위한 출발점입니다. 오스코텍은 앞으로 주주의 눈높이에서 설명하고, 주주의 목소리를 경영에 반영하며, 그 결실을 다시 주주와 나누는 투명한 회사로 거듭나겠습니다.

부디 이번 임시주주총회에 참석하시거나, 전자투표를 통해 의결권을 행사해 주셔서 오스코텍의 변화와 도약에 힘을 보태 주시기를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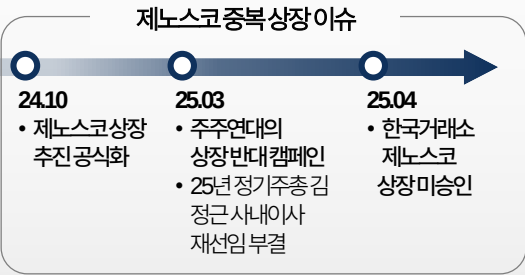
감사합니다.

오스코텍 주식회사
대표 윤태영 이상현 드림

임시주주총회 소집배경

회사의 꾸준한 신약개발 노력과 그로 인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주주 소통 미숙과 그로 인한 의사결정으로 주주들의 불만이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회사는 이를 엄중한 사안으로 여기고 주주들의 불만을 확인, 이를 직접 해결하기 위해 이번 임시 주주총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주주 불만 사항



제노스코는 2000년 설립된 미국 법인으로, 오스코텍과 함께 블록 버스터 약물 레라자(레이저티닙)의 원개발사로서, 추가 R&D를 위한 자금 조달 필수적이었던 상황임.

회사는 자금 조달 방안을 IPO로 결정했지만, 결정 및 소통 과정에서 서의 주주가치 제고의지, 설득 노력이 부족해 주주 불만 누적됨.

이는 25년 정기주총 김정근 사내이사 재선임안 부결로 이어졌으며 한국거래소의 최종 판단도 IPO 미승인으로 결정됨.

회사는 상장 후 지금까지 높은 개인주주 지분율에도 불구하고, 정기적 주주간담회 등의 주주 소통 채널 마련에 미흡한 모습을 보였음.

회사의 주요 경영 사항에 대한 고지와 설득, 나아가 경영 판단에 있어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노력을 했음을 설득력 있게 보여주지 못했음.

단순히 신약 연구 개발 등의 본업 뿐만이 아닌, 주주가치 제고 노력 및 IR 활동 전반에 대한 회사의 모습 변화가 필요한 상황임.

회사 대응: 제1호 의안

구분	변경 전 내용	변경 후 내용
제1호	제5조 [발행예정주식의 총수] 이 회사가 발행할 주식 의 총수는 40,000,000 주로 한다	제5조 [발행예정주식의 총수] 이 회사가 발행할 주식 의 총수는 50,000,000 주로 한다

오스코텍은 제노스코 지분 59%를 보유하고 있는 최대주주로, 제노스코 상 장 시 오스코텍 주주들은 더블카운팅으로 인한 지분가치 희석 효과 발생할 것이기에 회사는 주주들의 제안에 따라 제노스코의 100% 완전 자회사화를 결정, 지배구조 개선 및 주주가치를 제고할 것임.

현재 회사의 재무 상황 상 이를 위해선 추가 자금조달 필수적, 현재 한도에 달한 수권주식수 확대를 위한 정관변경 필요. 회사는 공시를 통해 이번 수권 주식수 확대를 통해 조달할 자금의 용처를 명시하였으며 주주가치를 훼손하 는 주주배정 유상증자는 없을 것을 공시.

회사 대응: 제2호 의안

구분	안건명	의견
제2호	사외이사 김규식 선임의 건	경영진과 일반 주주 간 이해관계를 일치시키는 선순환 구조 구축
제3호	사내이사 신동준 선임의 건	자본시장과 투자전략 분야의 전문가로 회사의 재무 정책 및 IR 역량을 고도화

회사는 연구개발직에만 치중된 이사회 구조에서 탈피하기 위해 재무 역량을 보유한 전문경영인 후보자, 주주가치 제고, 법률 측면에서의 전문성을 보유한 후보자를 신규 선임해 이사회 BSM (Board Skills Matrix: 이사회 역량지표) 개선에 나섬.

구분	변경 전 내용	변경 후 내용	변경의 목적
제1호	제5조 [발행예정주식의 총수] 이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40,000,000주로 한다	제5조 [발행예정주식의 총수] 이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50,000,000주로 한다	자회사 제노스코(Genosco)의 완전 자회사화를 통한 지배구조 개선 및 경영 투명성 제고를 위한 재원 마련
	[부칙] 	[부칙] 16. 이 정관은 2025년 12월 5일부터 시행한다.	

의안설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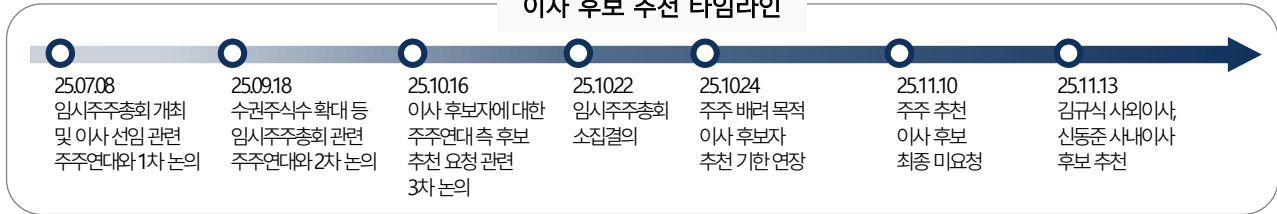
회사는 주주들의 의견에 따라 제노스코 상장 추진을 중단, 100% 지분확보를 통한 완전 자회사화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제노스코 완전 자회사화는 내부거래 및 손익배분의 명확성, 지배구조 개선, 기업가치제고 측면에서 긍정적이며 같은 관점에서 주주분들께서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바이기도 합니다.

이는 현재 회사의 제노스코에 대한 지분 59.12%를 제외한 나머지 지분 40.88%에 대한 매입을 필요로 하며, 회사의 재정 상태를 고려 시 추가 재원 조달이 필수적입니다. 이를 위해 향후 전략적 또는 재무적 투자자를 유치할 예정이며, 이번 수권주식수 확대는 오로지 향후 1~2년 내 위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할 것임을 약속 드립니다. 제노스코 기업가치평가 방식에 있어서는, 독립된 사외이사들로 구성된 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특별위원회가 독립된 외부 전문 기관의 객관적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산정할 것이며 의사결정의 전 과정과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드릴 것을 추가로 약속 드립니다. 특별위원회에는 주주들이 추천한 자문위원을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투명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아울러 회사는 이번 정관 변경의 목적, 재원 활용 방안, 기업가치 산정 방안 등에 대한 내용을 모두 공시하여 추가적인 주주 신뢰를 제고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현재 회사의 기발행주식수는 3천8백만 주로 발행 가능한 주식 수의 95.6%가 이미 발행되어 있는 상황이며, 이번 수권주식 확대는 기존 4천만 주에서 5천만 주로 25% 증가에 해당합니다. 코스피 및 코스닥 내 의약품 제조업 기업의 평균 발행주식수/수권주식수 비율이 33.2%¹⁾(코스피 38.1%, 코스닥 30.1%)인 점을 고려 시 이번 수권주식수 확대 정관 변경이 절대 과도하거나 무리한 확대가 아닌 점 고려 부탁드립니다. 나아가 실제 주식 수의 증가가 아닌 발행가능 주식총수의 증가인 점, 자금 조달 후 사용처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선행되었다는 점에서 주주가치를 최우선으로 고려한 회사의 선택이었음을 말씀드립니다.

해당 의안은 독립된 사외이사 선임을 통한 주주권 제고 역량 증대, 전문경영인 선임을 통한 재무,IR 역량 증대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주주총회 소집결의 이전부터 주주들에게 공개적으로 이사 후보자 추천을 요청하였지만 별도 제안은 없었으며, 내/외부 추천을 통해 의안 상정하였습니다.

이사 후보 추천 타임라인



이사 선임 배경 설명

회사는 주주들의 지속적 요청 사항이었던 독립적 이사회, 주주가치 제고 및 경영진 견제가 가능한 이사회, 재무,IR 등 향후 오스코텍을 단순 연구개발 측면이 아니라 모든 사업적 방면에서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이사회를 만들기 위해 이사 신규 선임을 하고자 합니다. 특히 현재 회사의 이사회는 총 4인 (사내이사3인, 사외이사1인)으로 연구개발에 중점이 맞추어져 있어 이사회 BSM 상 취약점이 존재하고, 이는 현재 회사가 직면한 중요 경영 과제 해결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 판단하여 최대한 빠른 이사 선임 절차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오스코텍 현재 이사회 BSM		산업전문가	기업가치제고	재무 및 회계	법률	리스크 관리	ESG
사내이사 (2020 . 03 ~ 2026 . 03)	윤태영	●	●				
사내이사 (1999. 09 ~ 2028 . 03)	이상현		●	●		●	
사내이사 (2025. 03 ~ 2028 . 03)	곽영신	●	●				
사외이사 (2023 . 03 ~ 2026 . 03)	홍남기			●		●	
합계		2	3	2	0	2	0

회사에 필요한 책임자를 폭넓게 알아보기 위해 주주총회 소집결의 이전인 9월부터 주주들에게 공개적으로 이사 후보자에 대해 책임자가 있다면 추천을 요청하였고, 시간이 촉박한 점을 감안하여 법적 주주제안 기일보다 추가로 보름 이상 검토할 시간을 부여하고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이후 소수주주연대 측에서의 별도의 제안을 받지 못해 이번 임시주주총회에서는 이사회 안건만 부의되었습니다.

회사는 이와 별개로 시장과 상장사 등 여러 경로를 통해 이사 후보를 지속적으로 물색했으며, 자본시장에서 직접 주주가치 제고 사례를 만들어 오신 김규식 변호사님을 후보로 모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재무,IR 전문가로서 25년 7월부터 회사에 합류하신 신동준 전무도 이번 이사회 합류를 통해 보다 주주친화적이고 선진화된 독립적인 이사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제2호 의안: 사외이사 김규식 선임의 건

찬성

김규식 후보자는 법률, 리스크 관리, 주주가치 제고 측면에서의 전문가로 독립적 이사회 활동 강화를 통해 경영진과 일반 주주 간 이해관계를 일치시키는 선순환 구조 구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BSM전문분야

산업전문	-	법률	●
기업가치	-	리스크	●
재무회계	-	ESG	●

주요이력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전) 금융감독원 법률고문
(전) KSA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전) 사단법인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회장
(현) 사단법인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이사
(현) Portfolio Manager, Vista Global Asset Mgmt. (Singapore)
(현) (주)에스엠엔터테인먼트 사외이사

기업거버넌스 개선, 주주권의 보호, 이사회 독립성 확립 측면에서의 전문성 보유

- 주주가치제고를 위한 여러 활동을 해온 기업 지배구조와 법률 분야 전문가
- 회사와의 이해관계가 없는 독립적 시각에서 이사회의 본 기능인 경영진에 대한 감시, 자문, 주주가치제고를 위한 의사결정에 기여할 수 있는 역량 보유
- 공정한 거버넌스에 기반한 상생과 번영이라는 직무 수행 철학 아래 경영진과 일반 주주 간의 이해관계를 일치시키는 선순환 구조 구축 목표
 - > 이사회 기능 강화: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견지에서 이사회 의사결정 기능과 경영진 감독 기능 강화
 - >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 마련: 오스코텍의 핵심 역량인 신약 개발(R&D) 부문의 장기적 가치와 안정적 사업의 균형 있는 성장 지원
 - > 주주가치 제고: 회사의 성과가 모든 주주에게 공정하게 귀속될 수 있는 투명한 거버넌스 및 주주환원 정책 마련

후보자 활동 및 기사

- 김규식 전 회장, "상법 개정 반대 측은 주주 수탈하는 재미로 경영하나?"... "한국만 무법천지" _2025.02.25_일요신문
- 김규식 기업거버넌스포럼 회장 "동일인 지정제 명문화, 코리아 디스카운트 우려" _2023.07.26_조선비즈
- 김규식 한국 기업거버넌스포럼 회장 "주주 위한 보상, 주주환원을 평균 50%는 돼야" _2023.04.03_한국금융

제3호 의안: 사내이사 신동준 선임의 건

찬성

신동준 후보자는 자본시장과 투자전략 분야의 전문가로 회사의 재무 정책 및 IR 역량을 고도화 하여 향후 제노스코의 완전 자회사화, 시장과의 신뢰 구축, 투명한 자본 운용 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BSM전문분야

산업전문	-	법률	●
기업가치	-	리스크	●
재무회계	-	ESG	●

주요이력

서강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중앙대학교 경제학과(박사)
(전) 미래에셋증권 Trading 부문
운용전략실장
(전) KB증권 리서치센터장
(전) KB증권 WM솔루션 총괄 본부장
(전) 중앙대학교 경제학과 객원교수
(현) 숭실대학교 금융경제학과 겸임교수
(현) 오스코텍 전무이사

자본시장 이해, 투자 전략 분야에서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재무 정책 및 IR분야에서의 전문성 보유

- 국내 유수의 증권사에서 투자전략 및 자산운용 분야의 전문가로 활동
- 특히 KB증권 리서치센터장 및 투자전략본부장으로 재직하며 시장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한 전략 수립 경험 존재
- 제노스코 완전 자회사화, 자금 조달 및 자본 배분 과정에서의 재무 투명성 제고, 시장과의 신뢰 구축 등 중대한 경영과제에 대한 책임 있는 경영 가능
- 주주 소통 및 IR 활동 전반을 책임지고 관리하며 신뢰를 바탕으로 주주와 회사가 같이 성장하는 선순환 구조 구축 가능
- 여러 이해관계자들이 제정한 경영전문성 강화 목적의 선임으로 재무관리 부문 경쟁력 제고, 주주가치와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대 가능함

후보자 활동 및 기사

- 오스코텍, KB-미래에셋증권 출신 신동준 CFO 선임 "책임 있는 재무전략 실행" _2025.07.02_더바이오
- "트렌드보다 본질... KB증권 원보이스 구축하겠다" _2022.02.25_더벨
- 2023년 한국능률협회 컨설팅(KMAC) 한국의 경영대상 (Innovative Service of the Year)
- 2014년 ~ 2021년 베스트 애널리스트 자산분배전략 1위
- 2004년 ~ 2014년 베스트 애널리스트 채권 1위
- 2011년 매경 증권인상(투자전략)

제4호 의안: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찬성

전기 1인이었던 회사의 감사는 현재 총 2인(이광열 상근 감사·이강원 비상근 감사)으로 보수총액 증대 필요성이 존재합니다. 감사 보수한도 증가를 통해 향후 더욱 효과적이고 투명한 내부통제 시스템 마련과 경영진·이사회 감시 및 보고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구분	감사의 수	보수총액 또는 최고한도액
제4호	(당 기) 2명	(당 기) 90,000,000
	(전 기) 1명	(전기) 70,000,000